



2022

임팩트 리포트

인권재단 사람

ON△DM
인권재단사람

 Brian
Impact

○▽△◇ 인권재단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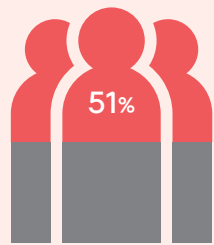
인권재단 사람 임팩트 리포트

인권 없는 인권활동이 되지 않기 위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성별 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1%로 조사국들 중 가장 컸습니다. 또한 한국은 OECD 15개 국가 가운데 두번째로 노인 차별이 심하고, 특히 온라인 등에서의 노인 혐오표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인권 활동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문제가 만연한 현실이지만 국내 인권단체는 대개 2-3인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활동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중하며, 전문성을 쌓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현재 국내 인권활동은 활동가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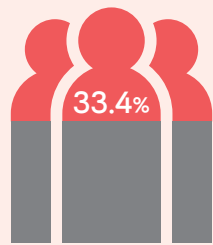
소수자, 차별받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함께 권리를 찾는 사람들, 바로 인권활동가입니다. 그러나 인권활동가가 일하는 환경은 너무도 열악합니다.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이 71개 인권단체 활동가 125명(상근 108명, 반상근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근 활동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명(51%)이 하루 평균 9시간 넘게 근무한다고 답했고, 36명(33.4%)이 주 6일 이상 일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 가운데 38명(30.4%)은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활동비를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 상근 활동가의 평균 활동비는 한달 181만원가량, 반상근 활동가의 평균 활동비는 80만원가량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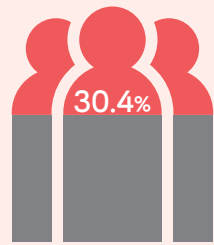
9시간 이상
[상근 활동가 108명 중 55명]

주당 근무일수



주 6일 이상
[상근 활동가 108명 중 36명]

평균 활동비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침
[전체 응답자 125명 중 38명]



연합뉴스

한국, 지난해도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여성이 31.1% 달받아
22.12.04



헤럴드경제

한국, 노인차별
OECD 15개국 중 2위,
연령통합적 사회
모색해야
21.04.08

1992년 한 변호사 사무실 한 칸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시작한 '인권상담소'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인권재단 사람은 2004년 9월 21일 창립 이사회를 열고 '다산인권재단'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재단을 처음 구상했던 이사진들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활동가들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의 보장, 둘째, 인권단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셋째 사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인권담론의 전파입니다. 이후 2006년, '인권재단 사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3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을 마련하였습니다. 외부의 지원 없이 오롯이 시민의 힘으로 성장해온 인권재단 사람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혐오로부터 안전'한 인권센터를 지향하며 앞으로도 인권운동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의 설립 목표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먹을 거 못 먹고 자기 헌신 속에서 활동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활동가들을 돕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체들 재정이 열악하니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 제도적으로 해서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게 하나의 주제였고요. 셋째, 인권 담론에 대해서 새로운 걸 개발하고 종합하고 정리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재단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인권재단 설립초기 이사진 인터뷰 중

인권재단 사람
초기 이사진의 재단 설립 목표



창립 이래 20여년이 흐른 지금의 인권재단 사람은 제공하는 프로그램 종류나 개별적인 지원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 설립 당시 구상한 세 가지 주요 목표가 변함 없이, 실천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프레임 도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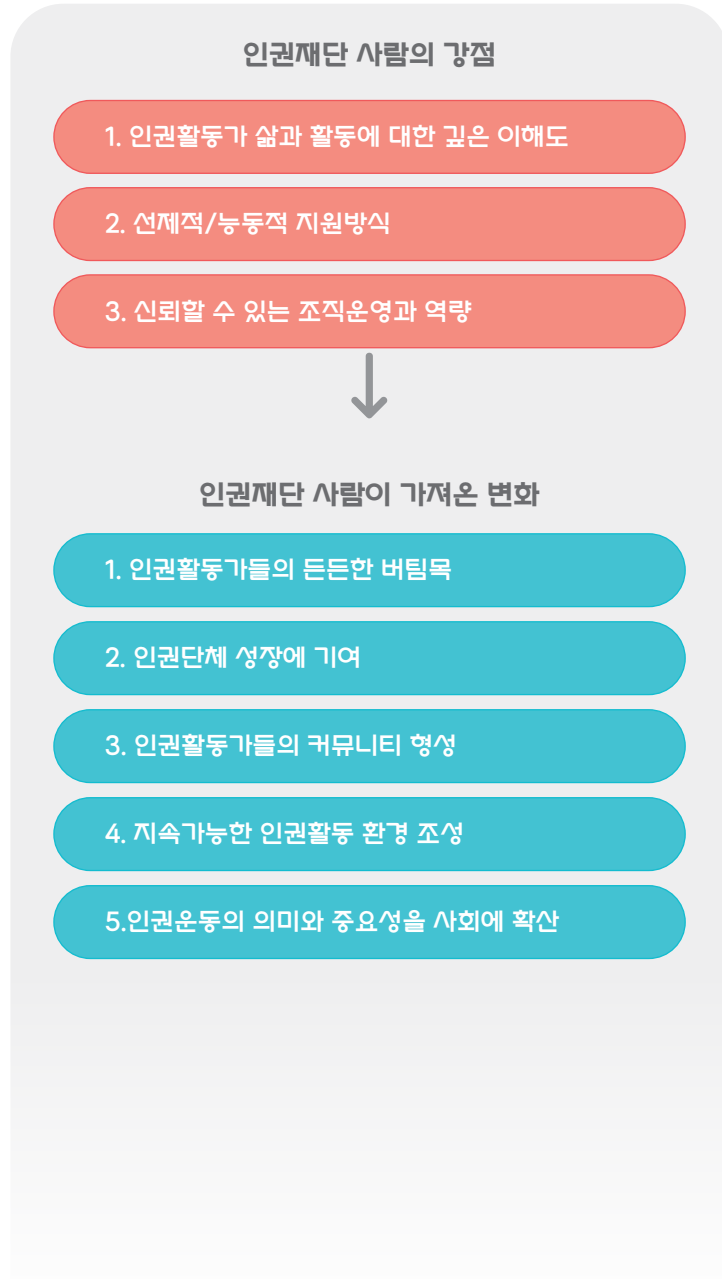
본 임팩트 리포트는 그간 인권재단 사람이 쌓아온 조직의 고유한 특성과 임팩트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권재단 사람이 설립 취지에 맞는 임팩트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내 인권운동 생태계에서의 역할 등 인권재단 사람의 구체적인 임팩트를 발견하고 정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는 과정을 거쳐 임팩트 프레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개요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워크숍	1차 2022/4/1 임팩트 측정을 위한 사전 워크숍 2차 2022/7/27 활동가 인터뷰로 도출된 임팩트 프레임에 대한 피드백 및 보충 워크숍
인권재단 사람 창립구성원 인터뷰	인터뷰 시점: 2022/11/3 인터뷰 방식: 대면 인터뷰 인터뷰 대상: 김철준 이사, 박래군 이사
인권단체 활동가 인터뷰	인터뷰 기간: 2022/05/17~2022/05/31 인터뷰 방식: 대면/비대면 인터뷰 병행 인터뷰 대상: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교육 프로그램을 1회 이상 경험한 인권활동가 6인
인권단체 사람 후원자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정기후원자 64명 조사기간: 2022/8/26~2022/9/2 설문항목: 인권재단 사람의 차별점, 후원하는 이유 등 9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함

임팩트 프레임 도출과정에서 독특했던 점은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인권재단 사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언급하기 이전에 인권재단 사람 조직 자체가 갖는 특별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인권재단 사람의 강점으로 1) 현장감을 토대로 한 인권활동가의 삶과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도, 2) 인권활동 특성에 부합하는 선제적/능동적 지원, 3) 활동가 및 후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조직 운영과 역량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강점에 기반하여 그동안 인권재단 사람이 만들어낸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인권활동가들에게 '중간조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든든한 존재가 되고 인권단체들의 성장에 기여하며, 활동가들의 동료가 확장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 또 활동가들이 몸과 마음을 챙겨가며 활동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권운동의 의미를 사회에 알리고 소통하는 부분이 인권재단 사람이 만들어낸 임팩트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
임팩트 프레임워크



인권재단 사람의 강점

1 인권활동가의 삶과 활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중간지원조직

지금도 인권활동가인 인권재단 사람의 구성원들

상당수의 중간지원조직들이 현장 경험없이 배분과 지원사업을 기획·수행하고 있거나, 정부 정책의 전달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많은 중간지원조직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조직 출신이라 하더라도 중간지원조직으로 포지션을 옮김에 따라 현장조직과 불가피하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권재단 사람의 구성원들은 길게는 20년 넘게 인권운동 현장에서 활동을 해왔거나, 지금까지도 이주민/난민, 아동청소년, 성소수자, 평화, 젠더, 주거, 동물권/비건, HIV/AIDS 이슈 등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병행하는 현장활동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같은 다양하고 오랜 현장 활동 경험은 인권재단 사람 내부 활동가들의 현장감각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이 모인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인권재단 사람은 현장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 단체들을 지원해왔고 이를 경험한 인권활동가들은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 대상은 단일 조직, 단일 활동가를 넘어 연대체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국 40개가 넘는 인권단체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를 비롯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등 지역, 이슈에 따라 구성된 다양한 네트워크/연대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재단 사람이 연대체를 구성해 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 인권활동 현장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단보다 인권재단 사람이 좀 더 저희 단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소규모 단체들은 모금 같은 거를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인권재단 사람은 모금 관련 교육을 배치한다든가 중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개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인권재단 사람 실무자분들이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중간 중간 많이 바꿔야 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활동가의 상황을 배려하는 세심하고 간명한 지원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삶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열정 넘치는 인권활동가라도 저임금과 휴식 없는 환경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그 설립 토대부터 인권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에 주목해왔습니다. 인권활동가와 인권단체가 없다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직업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작지만 세심한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인권활동가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매년 추석을 앞두고 인권활동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비수도권 지역 활동가의 교통비/숙식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공모 사업 이외에도 매년 추석 선물 같은 것도 신청하면 보내주시잖아요. 명절 선물 비용도 되게 큰 부분이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서울 출장 회의비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작지만 되게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활동가, 현장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최근 8년(2015-2022년) 인권활동가 추석선물나눔 캠페인 모금 금액과 지원한 활동가 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부액 (단위: 천원)	4,790	12,945	10,010	13,350	14,513	17,830	19,082	16,990
지원한 활동가수 (단위: 명)	176	270	200	229	229	230	235	233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긴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가들의 욕구에 맞춰서 하려고 질문도 많이 하고 의견 청취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내부인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하고 양식이나 보고에 있어서 간편성을 지향하는, 활동가들의 업무를 가중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요.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인권재단 사람의 배분원칙



인권중심



현장성



반차별

긴급한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변화의 주체로서 현장에서 활약하는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사업수행과정이 서로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살피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업수행역량이 높은 단체보다 성과와 성장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한 인권 영역을 찾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배분 사업은 정기공모뿐 아니라, 수시지원을 통해서도 인권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 형태는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시기나 상황을 예측하기 힘든 인권현장의 긴급함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들도 입 모아 타기관과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는 인권재단 사람만의 지원 프로세스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인권활동119 지원 기금은 시간, 절차, 행정 이런 걸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재단 배분위원회에서 긴급하게 판단하고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는 정말 압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긴급 지원 같은 경우에 타 사업에 비해 (절차 간소화가 10기준으로) 거의 1~2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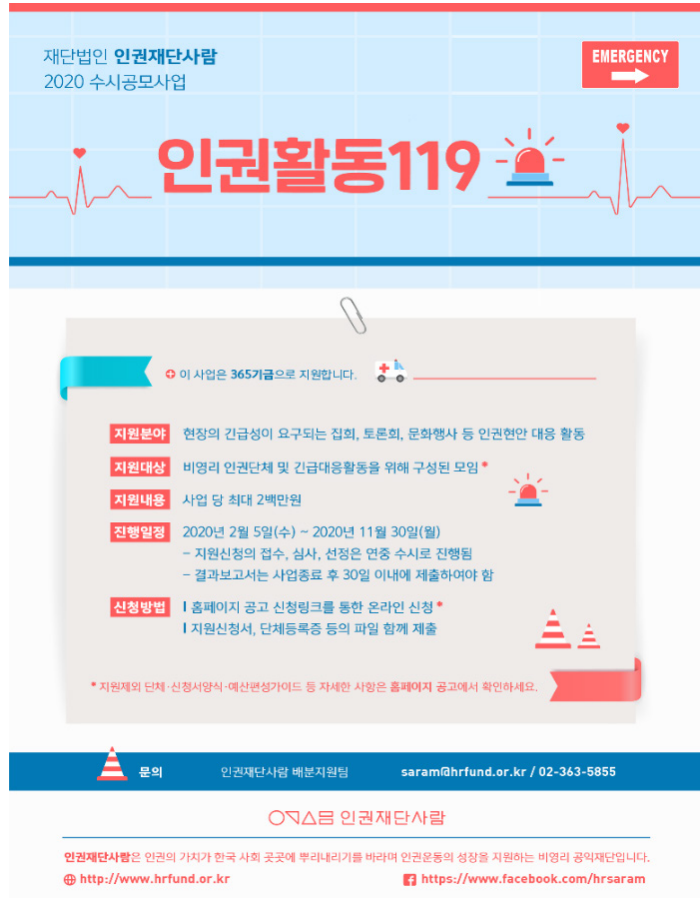
이명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긴급지원 배분절차

대부분 연말 연초에 모집하는 1~3년 단위 공모사업으로는 긴급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인권활동119>는 사전에 계획할 수 없었지만, 긴급하게 인권활동을 기획해야 한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수시공모 형태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신청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단체가 아닌 모임(비등록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용통장 사용과 같은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절차 : 온라인신청접수(지원신청서, 단체등록증 또는 모임대표자등본) > 온라인심사(배분심사위원회) 약 1주일 소요 > 지원여부 통보 및 지원금 교부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결과보고서, 지출내역표, 영수증 병서류)

2020년 수시공모사업
'인권활동 119' 지원안내 포스터



2 먼저 손 내미는 페이스메이커

먼저 제안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선제적/능동적 지원(Proactive)

인권재단 사람의 현장밀착형 일하기 방식은 현장 조직의 필요를 예상하고 활동가들에게 지원을 먼저 제안하는 특별한 지원형태로도 발전했습니다. 긴급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인권재단 사람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지원 사업을 저희 단체도 같이 했는데 연구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한 모금 워크숍을 재단측에서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한지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재단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계획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해볼 마음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쪽에는 '코로나19와 인권', 그리고 '지역'이라는 키워드로 고민을 같이 할 생각이 있냐고 제안을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만나서 이야기하고 모금 페이지를 한 2-3일 만에 열었어요. 재단에서 빨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모금 페이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농성을 뭐라고 설명할지 이런 거 짚 알아서 뽑으시고... 재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운동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모금이 필요한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지 자체적으로 모금 기획과 슬로건을 뽑을 정도로 다 아셨어요.

이명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선제적 지원 사례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원금 감소, 사업축소 등으로 단체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존의 사업비 지원만으로는 단체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의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선정된 10개 단체 모두 수입이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평균 23%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협약식을 진행하며 단체들이 마주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고민을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인권사업을 특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특별지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인권단체들이 15년 이상 지속해온 법 제정 운동이자 반차별 운동입니다. 긴 시간 고군분투하였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침묵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2명의 인권활동가가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농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을 준비할 시간도 모금을 준비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인권재단 사람에서는 긴급 모금캠페인을 시작하여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를 알리고, 농성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인권활동가 개개인이 사비로 활동 비용을 충당해야 했던 부담을 낮추고, 단식 농성했던 인권활동가들의 일상적 회복에 필요한 비용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인권재단 사람이 가장 든든한 지원처였다는 인권활동가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감각에 기반한 '민첩함'

인권재단 사람은 발빠르게 인권활동에 접근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의 현장은 그 특성상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침해의 상황속에서 현장성에 기반한 감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이슈가 있을 때 재단 활동가들이 현장에 직접 와서, 재단이 잘 할 수 있는 모금 활동과 연결하여 제안을 주기도 하였어요.

한지혜 (청소년인권운동대 지음)

사업 자원 계획을 하실 때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와서 말씀 나누시고 상세하게 활동 이 야 기도 듣고 그러셨어요. (인권재단 사람 실무자분들이) 사업 목적과 그것이 벌어질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으셨어요.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 치는 첫날에도 재단 분들 다 오셨어요. 텐트를 못 치 게 해서 결국 몸싸움을 한 2시간 대치하다가 텐트를 못 쳤거든요. (재단분들도) 결국은 그비 다 맞으셨죠.

이명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 방문,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지원에 가장 앞장선 <장애인지역공동체>를 방문한 모습



2022년 농촌이주노동자 의약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인권버스'를 타고 경기도 포천에 방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가속행씨 추모를 위한 기자회견 모습.

인권재단 사람의 현장감각을 보여주는 사례

[사례1] 2021 농업이주노동자 지원캠페인 '찾아가는 인권버스'

농업 이주노동자의 노동, 주거, 건강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화장실조차 없는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숙박하고 버스도 다니지 않는 곳에서 일하며 살고 있어 긴급하게 약국이나 병원에 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하루 10시간, 12시간 일하며 한 달에 이틀을 쉬어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현장이 많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도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약국이나 병원에 갈 수 있어 이주노동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안산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법률상담, 건강 검진, 긴급지원 등 활동을 11년 동안 해온 '지구인의 정류장'과 함께 '농업 이주노동자 지원 캠페인: 찾아가는 인권버스'를 공동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촌 지역에 고립돼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활동입니다. 농촌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노동법률 상담, 의약품 키트 전달, 건강 검진, 숙소 점검, 병원 동행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례2] 2018년 난민인권활동 지원 특별 모금캠페인

2018년 제주도에 내전을 피해 온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입국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절박하게 한국을 찾은 난민에게 한국 사회는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를 제주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난민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한국 사회에서 난민혐오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활동가들은 제주도에서 긴급하게 난민들을 지원했습니다. 한글교실을 열거나, 난민아동과 함께 어울려 놀기도 했고, 노동권이 침해 받을 때는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난민인권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난민인권활동가들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모금을 하여 지원했습니다.

3 활동가와 후원자에게 신뢰받는 조직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활동가가 사회 변화를 이끄는 사람임을 믿고, 수평적 관계에서 이들을 지원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활동가들에게 동료로서 단단한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후원자들에게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조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후원자 설문조사 진행 시, 인권재단 사람을 후원하는 이유와 인권재단 사람만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다수의 후원자들이 '단체에 대한 신뢰'를 언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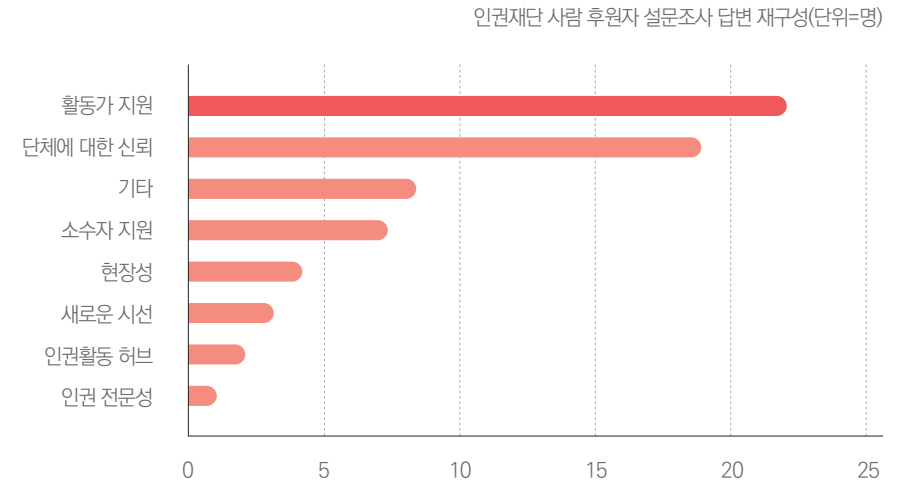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고 인권활동가들의 삶의 패턴이나 이런 고민도 같이 나눌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원 사업할 때도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원기관의 경우)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있고 저의 느낌일 수 있지만 어쨌든 평가받는 입장이니까 서류든 면접이든 그런 긴장감 같은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지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외부에서 사진관련 교육을 들었을 때, 강사분이 '대상화'를 하셔서 조금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권, 활동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부 교육을 들 때와 달리, 인권재단 사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들을 땐 그러한 불편함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이슬기 (인권운동사랑방)

제가 활동했던 언니네트워크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이 인권재단 사람과 동료 관계를 맺지 않은 활동가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명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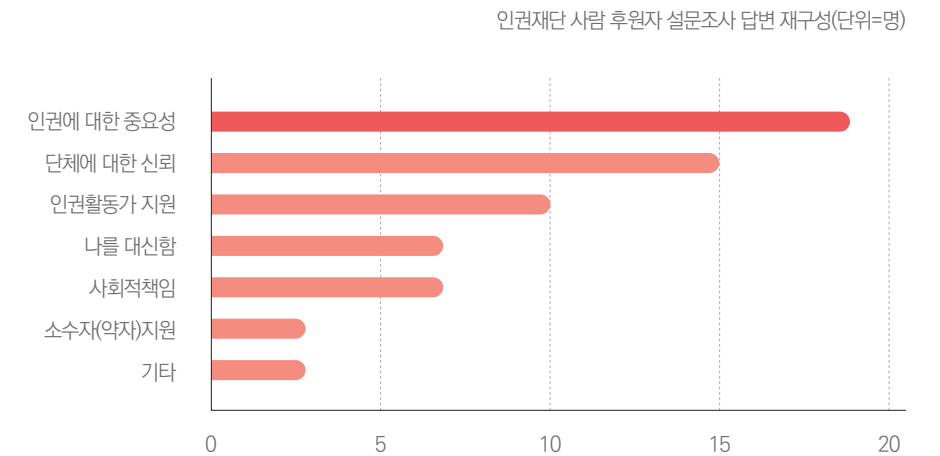
정기후원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인권재단 사람이 갖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차별점으로 가장 많은 후원자가 '활동가 개인에 대한 지원'을 꼽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인권재단 사람이라는 '단체 자체에 대한 신뢰'를 언급했으며, '소수자에 대한 지원', '높은 현장성',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인권활동의 허브' 역할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차례로 차별점으로 답변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이 갖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설문조사에서 인권재단을 후원하는 이유에 대한 후원자들의 대담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은 '인권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큰 이유로 언급했고, 차별점과 마찬가지로 인권재단 사람 단체 자체에 대한 신뢰, 활동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성격, 나를 대신해서 인권문제에 앞장서는 활동에 대한 지지, 사회적 책임감, 소수자(약자)를 향한 지원을 후원 이유로 대담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을 후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권재단 사람이 가져온 변화

1 인권활동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

인권재단 사람의 사업은 크게 배분, 교육, 재정발전소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인권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스스로 구축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제공하거나 활동가들의 정서적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이 하는 일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소개	지원구분
배분사업	인권프로젝트-온 (정기공모사업)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인권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2022년 노동인권, 난민인권, 성소수자, 기후위기 등 다양한 인권활동을 지원	단체
	인권활동 119 (수시공모사업)	현장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집회, 토론회, 문화행사 등 인권현안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단체
	인권프로젝트-업 (지정지원사업)	2021년 농촌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버스 모금을 통해 2022년 지구인의정류장에서 총 4회의 인권버스를 운영, 의약품키트를 전달	단체
	인권보름달 채우기	인권활동가 추석선물 나눔캠페인	활동가
	슬기로운 마음생활	인권활동가 자기돌봄 프로젝트, 인권활동가의 마음돌봄 지원	활동가
	일단, 쉬고	인권활동가가 스스로 기획한 여행, 운동 등 쉼과 재충전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활동가
	한달음	비수도권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이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	활동가
	인권활동가대회 지원 (특별지원)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활동가대회를 지원	단체/활동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 지원 (특별지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단식농성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모금을 통해 농성, 문화제, 단식자회복, 평가워크숍 등을 지원	단체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인권을 지향하는 신생 비영리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	단체	
교육사업	저연차 활동가 학습세미나	신입활동가 공동교육에 참여한 활동가들과 함께 서로의 활동분야를 공유하며 다양한 인권의제를 학습하는 세미나 진행	활동가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소규모 인권단체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인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교육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는 실습교육 진행	단체
재정발전소	재정발전소 운영	인권단체의 기부금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기부자의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 후원금을 지정 인권단체로 배분	단체

인권재단 사람 지원사업 현황(2022년 말 기준)

인권재단 사람을 한 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에 '오아시스', '콜센터', '동료', '든든함' 같은 키워드를 망설임 없이 말할 만큼 인권재단 사람에 대한 활동가들의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현장 활동가들에게 인권재단 사람은 물리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편이 되어주고, 우리의 활동을 항상 응원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든든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든든하다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늘 되는 건 아니지만 넣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거죠.

최고윤 (부산반빈곤센터)

번아웃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말하자면 나 중에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떼를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한 마디로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미찬 (지구인의정류장)

다른 조직에 물어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얘기하는 걸 이 사람이 잘 알아들을까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인권재단 사람에 물을 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거리낌 없이 편하게 상의할 수 있고 해답을 주기도 하고 요령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인권재단 사람에서 얘기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후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권재단 사람의 역할과 이미지 역시 이와 유사했습니다. 후원자들은 '약자의 쉼터', '함께 사는 세상', '따스한 온기' 같은 이미지로 인권재단 사람을 떠올렸고, '우리를 대신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 지속가능한 인권활동가의 삶을 위한 노력

인권재단 사람은 지속가능한 인권 생태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식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 2019년 두차례 진행했던 대규모의 인권운동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활동가들의 상황과 욕구를 통해, 활동가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심 없이 계속되는 업무와 스트레스가 축적된 활동가들의 재충전과 마음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활동가 개인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신규 활동가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활동가 재생산 측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 인권운동 실태조사: 인권운동의 현 주소를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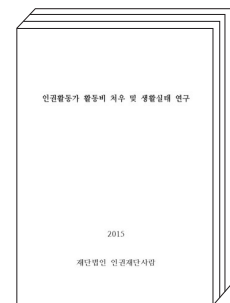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인권재단 사람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두 차례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권활동가의 활동환경 및 단체의 기반은 어떠한지, 인권운동의 내적, 외적 조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인권운동이 고민해야 할 과제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별 인권활동가와 만났습니다. 이 연구는 활동가가 처해있는 상황을 세상에 알렸고, 인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인권재단 사람은 직접 주체가 되어 실태조사를 진행할뿐 아니라 개별 인권조직의 연구사업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지속가능보고서 발표도 하고 결과도 나누고 했는데, 보면서 진짜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꼭 필요한 일이고 활동가로서의 삶이나 활동가로서의 전망이나, 넓게 보는 측면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필요한데, 최근에 다들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꼭 필요한데 쉽게 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권재단 사람이 챙겨 가지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한지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2) 활동가 교육

인권재단 사람이 활동가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은 단지 역량강화나 정보전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활동가들은 교육에 참여해 같은 고민을 나누는 동료 활동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입니다.



실태조사 보고서 표지

인권재단 사람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다 같은 조직 소속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럼에도 인권재단 사람을 통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느슨하고 개방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서로가 기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인권재단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도 아는 사람이 있어' 하는 든든함이 생겼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경험,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참여했던 교육이 끝나고 시간이 되는 분들은 저녁 시간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재단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그때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됐고요.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다른 저연차 활동가분들을 영입해 인원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슬기 (인권운동사랑방)

모일 공간을 찾는데, 전반적인 설비가 갖춰져 있는 데가 잘 없는 거예요. 저희 단체들이 사무실도 월세가 없어 가지고 막 꼭대기 층 쓰고 이러다 보니까, 휠체어 타거나 하는 활동가들이랑 같이 잘 못 만나고 속상한데 이제 인권재단 사람 공간을 빌리면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한지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저희 단체 안에는 20년 활동하는 활동가부터 10년 차, 6년 차, 3년 차 이렇게 있거든요. 이미 다른 운동을 경험하고 들어온 저 같은 사람부터 아예 처음 활동하는 단체가 여기인 사람까지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요. 제가 봤을 때 단체에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선배라기보다, 자기하고 비슷한 경험 혹은 연령 혹은 비슷한 연차의 친구이자 동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이번에 저희 단체 신입활동가가 재단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면서 깨닫게 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명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가 저년차 인권활동가 모임에 참여하면서 달라진 면이 있어요.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활동하며) 애매했던 부분을 다른 단체분들과 공유하기도 하고요. 활동한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저년차 인권활동가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했어요. 이 자리를 통해 활동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난감함을 공유할 수 있는 같은 연차의 활동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좀 더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슬기 (인권운동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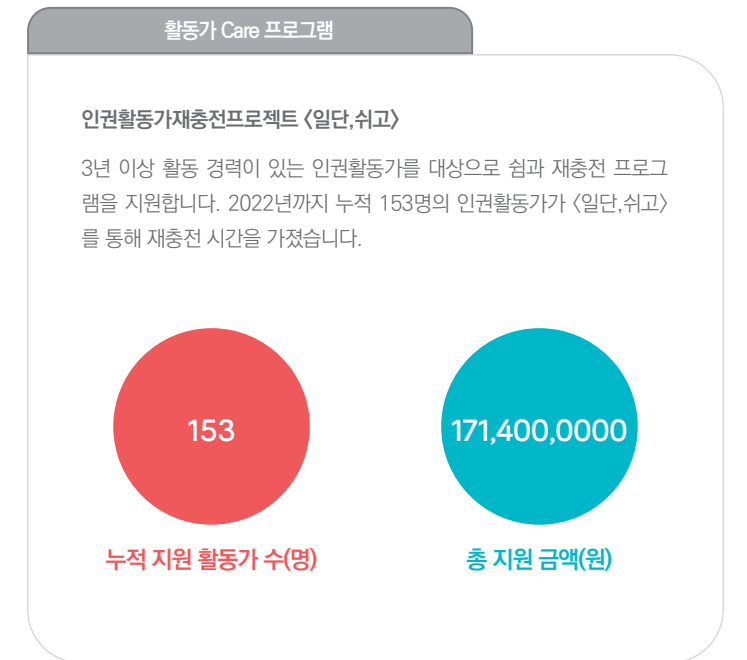
활동가 대상 교육프로그램 (2020~2022)

연도	제목	목표	추진결과
2020	인권의 내일을 위한,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저년차 인권활동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인권운동을 촉진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 저년차 인권활동가 간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인권운동을 활성화 한다.	- 시행방법 : 3년 이하 경력의 인권활동가를 대상으로 활동가로서의 기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인권운동 전반에 관한 교육 제공 (강의 및 워크샵 총 15회, 기행 1회) - 참석 : 27개 단체 34명 (장애여성공감, 진보네트워킹센터 등 27개의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연인원 210명 참석) - 시기 : 2020년 5월 ~ 7월 (총 8주, 주1회)
2021	인권운동 어떻게 해? 경험 나누고 더하기	- 저년차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운동의 전략과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참고할 만한 인권활동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각자의 인권활동에서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 인권활동가 공동교육의 장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촉진한다.	- 시행방법 : 저년차 인권활동가에게 효과적인 인권운동 전략을 협력을 통한 교육으로 제공하여 활동가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함. (강의 및 워크샵 총 9회) - 참석 : 14개 단체 20명 참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4개 단체 소속 활동가 참여) - 시기 : 2021년 10월 ~ 11월 (총 4주, 주1회)
2022	우리단체 후원인의 정보를 지켜라!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의 기본개념과 비영리 책무로서 단체에서 지켜야할 기본수칙을 이해한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및 점검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본적인 이행방안을 이해한다.	- 시행방법 : 정보인권 단체 2곳과 협업하여 소규모 인권단체 맞춤형 <개인정보처리방침 권고안>을 제작, 강의 및 실습 컨설팅으로 교육을 진행함. - 참석 : 이론교육은 32개 단체 40명 참석, 실습교육은 15개 단체 20명 참석 - 시기 : 2022년 7월 ~ 8월

3) 활동가 마음돌봄

첨예한 사회이슈의 한 가운데서 인권이라는 원칙적이고, 비타협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갑니다. 특히 차별과 혐오, 폭력의 피해자와 함께하며 고통과 트라우마가 전이되기도 합니다. 인터뷰에서도 “스스로 소진되는 느낌”을 토로하는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마음 돌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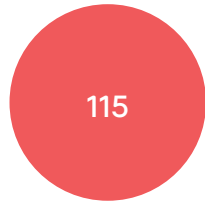
인권재단 사람의 활동가 마음 돌봄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일단쉬고>와 <슬기로운 마음생활>이 있습니다. <일단 쉬고>는 인권활동가가 스스로 기획한 여행, 운동 등 쉼과 재충전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권활동가 자기 돌봄 프로젝트 <슬기로운 마음생활>은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마음건강검진 등을 제공합니다.



활동가 Care 프로그램

슬기로운 마음생활: 마음건강검진 지원

인권단체에 소속된 상근/반상근 활동가 중 최근 2년 이내 심리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활동가나 재검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활동가 115명에게 마음건강검진(심리검사 3종 및 전문가상담 총 2회) + 다과쿠폰(신규) 혹은 마음상태점검 상담 1회(재검진)을 제공하였으며, 총 지원금액은 2,030만원 입니다.



누적 지원 활동가 수(명)



총 지원 금액(원)

인권의 관점을 지키면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 그 인권활동가들은 그러면 누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안식년 같은 걸 가져본 적이 없다보니, 2020년 되자마자 <일단, 쉬고>를 신청해서 그 걸로 요가도 다니고 제주도 한 달 살이하고 되게 잘 보냈죠.

한지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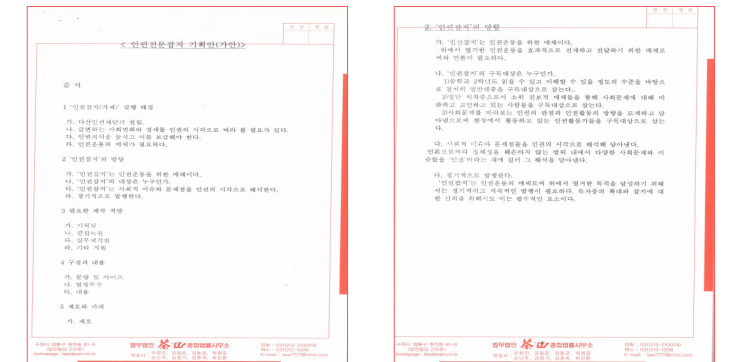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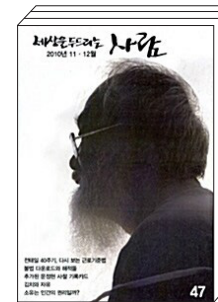
5 인권 운동의 의미를 사회에 알리다

인권재단 사람은 설립 초기부터 인권 운동의 의미를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격월간 인권잡지로 발간되던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에서 현재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간되는 <읽는 사람>까지 발간물의 형태는 변했지만, 인권재단 사람은 변함없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새로운 인권의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자체 SNS채널을 통해 인권운동의 의미를 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재단을 연결고리로 다양한 잠재후원자를 새로운 인권이슈, 단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서 싸워서 그때그때의 대응 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의 의제들을 담론들을 잘 정리해서 전파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개별 인권단체가 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죠. 사안을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부분하고 또 자유권, 사회권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권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저도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활동가들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의제를 만들어 나가거나 담론을 정리하고서 활동가들한테 전파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권재단 설립초기 이사진 인터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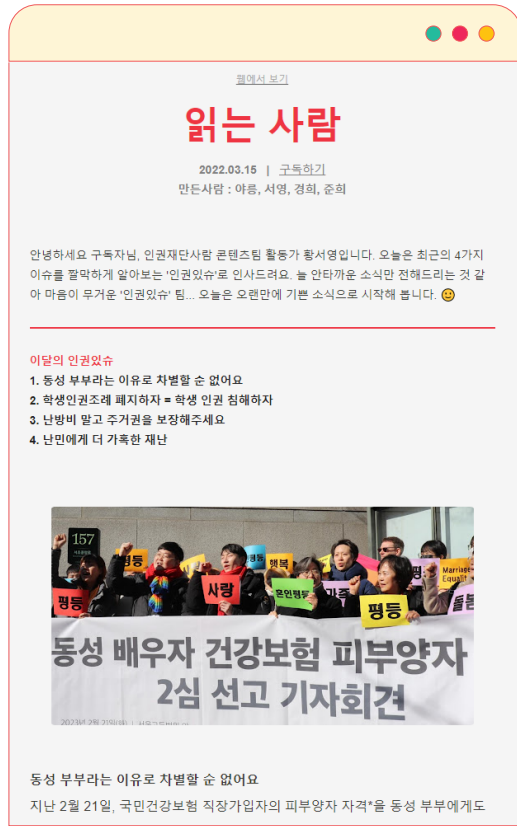
인권잡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표지



2005년 3월 인권전문잡지 초기 기획안 중 일부

활동가들의 의미를 알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홀리스가 있어요, 여기에 청소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여기에 인권활동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 사회에 하는 느낌입니다.

한지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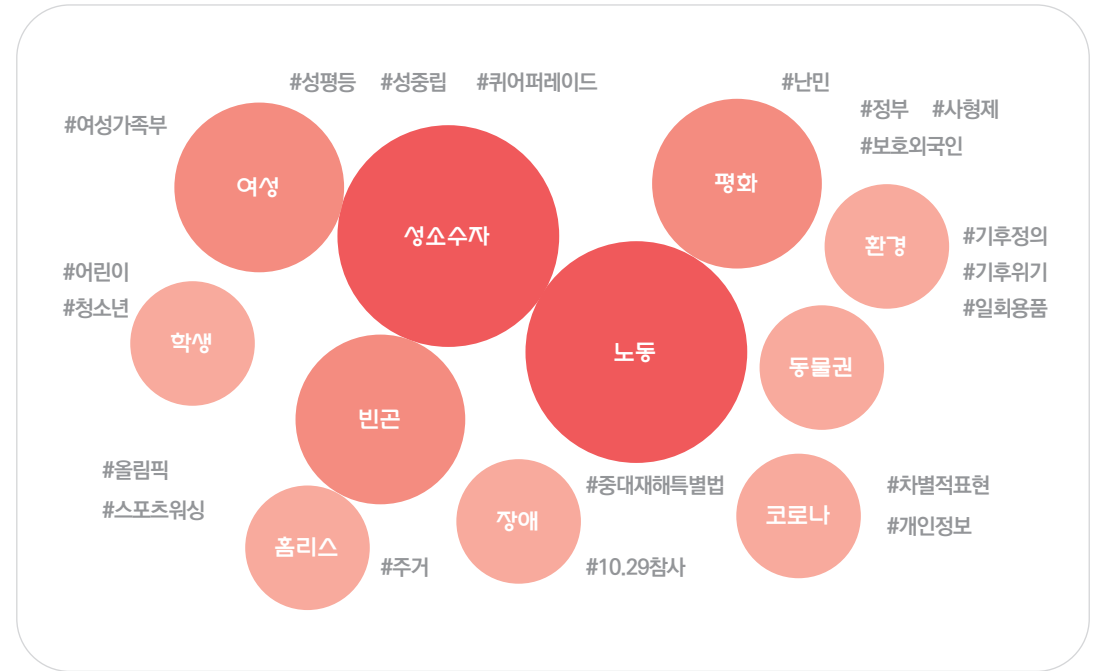


뉴스레터 <읽는 사람> 캡처

뉴스레터 '읽는 사람' 구독자 추이

연도	구독자 수	전년대비 증감(수)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2	7,539	2,451	+48.8%
2021	5,088	905	+22%
2020	4,183	451	+12%

2022년 뉴스레터 '읽는 사람' 콘텐츠 키워드 빈도별 재구성



맺음말

이번 임팩트 프레임워크를 통해, 그동안 인권재단 사람은 척박한 인권활동 현장에서 단체들과 활동가들을 보듬는 우산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인권활동 생태계를 확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의제를 전달할 예정인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운동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크고 작은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공존하는 생태계 지향

여전히 척박한 인권활동 생태계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활동방식과 인권 담론 생산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인권활동가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 역시 새로운 세대의 인권활동 생태계를 위해 교육, 커뮤니티 등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소규모 신생 인권조직의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도 진행합니다. 향후 국내 인권운동 생태계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다채로운 의제를 다루는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인권재단 사람 역시 중간지원조직이자 생태계 빌더로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 새로운 공간 마련으로 인한 임팩트 창출 기대. 특히 담론을 이끄는 공간

현재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인권센터(2023년 12월 완공 예정)는 이전 마포구 성산동에 있던 '인권중심사람'(2013~2021년)을 은평구로 확장 이전에 운영할 공간입니다. 앞으로 사무실 없이 활동하는 소규모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될 계획입니다. 향후 이 공간을 통해 인권활동 생태계에 다채로운 임팩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인권 담론을 이끌어 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려는 이 건물은 그냥 수많은 건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인권의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며, 가꾸고 돌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 갈 길을 안내하고, 심터가 되며, 샘물이 되는 고결한 자리입니다.”

새로운 인권센터의 첫 삽을 뜨며 (박동호,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

[참고] 인권센터(2023년 완공 예정) 층별 공간 소개

지하1층 다목적홀

다양한 행사, 교육, 모임 등이 개최되는 다목적공간
인권단체가 주최하는 다양한 교육, 모임, 행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1층 코워킹라운지

인권활동가 협업공간. 인권활동가들의 협력과 교류가 가능한 라운지, 협업공간

2층 인큐베이팅 단체 공용 업무공간

인권단체 성장지원 프로그램(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업무공간

3층 인권재단 사람 사무공간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들의 업무 공간

4층 인권활동가를 위한 회의공간과 휴게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휴게공간



